

종합·국제



G20 정상회의 폐막

캐나다 토론토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명박 대통령(왼쪽 왼쪽에서 다섯번째)과 각국 정상들이 27일(현지시간) 토론토 컨벤션센터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선 의원 관행 깨자” VS “위상 감안 중량급이 맡아야”
광주시의장 후보 민주당 경선 치열

의장 후보 등록 땀 부의장·상임위원장 진출 못해

민주당 광주시의원들이 30일 경선을 통해 제6대 광주시의회 의장 후보를 선출하기로 한 가운데 경선에 나선 후보 간 막판 표밭 다지기가 치열하게 펼쳐지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 경선이 치열한 것은 제6대 광주시의원 구성상(민주당 20명·민노당 2명·교육의원 4명) 민주당 경선에서 뽑힌 후보가 의장 후보 최종 선출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 소속 당선자 20명 중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은 3선인 손재홍(동구), 나중천(남구) 의원과 재선인 조호권(북구) 의원, 초선인 윤봉근(광산 갑) 당선자 등 4명이다.

애초 의장 경선 후보로 등록했던 진선기(북구 갑) 시의원이 28일 경선 출마를 포기하면서 민주당 광주시의회 의장 후보 경선은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이달 경선 결과 1차 투표에서 과반(11명 이상)을 얻어야 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차 투표에서 1·2위를 한 후보가 결선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를 뽑게 된다.

현재로서는 4명의 후보가 당선 이후부터 꾸준히 초선 의원들을 공략해 온 만큼 특정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과

반 확보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대체적인 분석이다.

따라서 결선투표에서 승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1차 투표에서는 당선자들의 선거구와 후보 간의 ‘친분’ 등이 감안된 투표성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초선(16명) 표가 향배를 가르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현재 일부 초선의원들은 ‘다선 의원이 반드시 시의회의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관행을 이번엔 깨보자’라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초선인 윤봉근 당선자를 대표주자로 미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과 민주당 광주시당 안팎에서는 초선의원이 의장이 될 경우 제6대 광주시의회 의장단(부의장 2명·상임위원장 5명) 구성이 모두 초선의원들로 채워질 수 있다는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광주시의회 의장 후보로 등록하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한 득표자가 없으면 1차 투표에서 1·2위를 한 후보가 결선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로 등록한 3명의 재선·3선 의원들이 의장 후보로 선출되지 못하면 제6대 광주시의회 상반기 의장단에서 모두 제외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초선인 윤봉근 당선자가

의장에 당선될 경우 전체 초선 22명 의원 중 8명이 모두 의장단을 차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구의회 경험에 있는 ‘구의원 출신’ 등 대부분의 초선 의원들은 광주시의회 위상과 역할을 감안해 초선 보다는 재선 이상이 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광주시의원 당선자는 이날 “시의회 경험이 없는 초선 상당수가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면 의장단이 너무 경량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면서 “초선이 의장단을 모두 차지할 경우 일부 초선 의원들 간 헝거투기 우려와 함께 의원 간, 집행부와 의 조율 등 의정 전 반을 잘 이끌어갈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부 초선 의원들은 “아직까지 초선 의원 대부분이 특정 후보에 치우치지 않았고, 30일 경선에 앞서 열리는 토론회를 통해 의장 후보를 검증한 뒤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노당 광주시당은 이날 “민주당 의장 경선이 ‘짜릿기’에 대한 시민의 우려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의장 선거를 비롯한 의장단 구성을 민노당 당선자와 교육의원 당선자와 협의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때 따라 초선인 윤봉근 당선자가

서울회의 앞서 잇단 실무회의...광주에선 재무차관 회의

G20 향후 일정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앞서 미국 워싱턴과 우리나라 경주에서 한 차례씩 모두 두 차례의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린다. G20 회원국들은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접촉을 통해 광경 현안들에 대해 치

열한 의견 조율작업을 벌이게 된다.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10월 9~10일에는 우선 프랑스 파리에서 금융규제의 추가개혁 과제를 놓고 워크숍을 갖는다.

9월 4~5일에는 광주에서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회의가 열리며, 9월 중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에너지 접촉을 통해 광경 현안들에 대해 치

열한 의견을 조율한다.

○서울 정상회의 1만여명 모일=서울 정상회의 직전에는 G20 서울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이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G20 각국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초청해 민간 부문의 의견이 G20 정상회의의 논의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청취 작업이 진행된다.

이후 11월 11~12일에 한국 정부가 의장국으로서 G20 정상들을 초청해 서울 코엑스에서 정상 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

오바마 “중국, ‘천안함’ 北 개입 인정해야”

“자제력 발휘와 ‘의도적 눈감기’는 달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7일(이하 현지시간)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과 계속되는 문제들을 의도적으로 눈감는 것은 다르다”며 천안함 사태에 북한이 관여했다는 조사 결과를 수용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토론토에서 폐막한 G20(주요20개국) 정

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이웃이자 동맹국인 북한에 대해 자제력을 발휘하려 하는 점을 이해한다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6일 회담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천안함 사태에 대해 “매우 직설적(very blunt)”으로 말했다고 소개한 뒤 “이번 일(천안함

사태)이 북한이 선을 넘은 사례라는 점을 후 주석이 인정할지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것은 도덕적 등가성을 가진 양쪽이 논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한 도발적이고 치명적인 행위에 관여한 상황”이라며 “나는 우리가 그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천

3년만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회복

재정부 하반기 경제정책...2만 6000弗 예상

올해 우리나라가 3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고지를 회복할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8%로 높임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의 명목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6000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400달러 정도가 늘어나는 셈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5%에서 5.8%로 올라갔으며 환율 또한 지난해 달러당 1200원 후반대에서 올해 1200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조금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007년 2만1천659달러를 기록한 이래 처음으로 2만달러대에 복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후유증에서 단기간에 벗어났다는 의미

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2004년 1만582달러, 2005년 1만7531달러, 2006년 1만9722달러, 2007년 2만1659달러로 정점을 찍고 나서 2008년 1만9296달러, 2009년 1만7175달러로 하락세를 보여왔다.

당초 정부는 올해 달러당 연평균 환율이 1천100원대 후반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충분히 회복할 것으로 낙관했으나 올해 환율이 1천200원대를 보임에 따라 2만달러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됐었다. /연합뉴스

“50년 후 우리나라도 年 33억t 물 부족”

국토부 “홍수·가뭄 증가...영산강 유량 10.8% 줄어”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50년 뒤인 2060년에는 우리나라도 연간 최대 4억 33억의 물 부족 현상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소양강댐의 총저수량 29억t을 초과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기후변화소위원회

(위원장 윤용남 고려대 명예교수)가 작성한 ‘기후변화 대응 미래 수자원 전망(안)’ 보고서가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월 수립할 예정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지구적 기후변화 모델을 적용한 결과, 2100년경 우리나라는 강수량의 편차가 매우 심해져 하루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횟수가 과거보다 2.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02년 태풍 루사가 하루 동안 강릉에 파부는 870mm를 초과하는 1000mm 이상의 극대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00년 빈도의 홍수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된 제방의 홍수방어 능력이 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극단적으로 비가 적게 오는 해도 많아서 가뭄 발생 횟수가 3.4배 늘어나고, 이럴 경우 하천 유량이 지금보다 57% 줄어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연간 평균 강수량이 증가함에도 기온 상승으로 물이 증발하는 현상이 심화돼 2060년 기준으로 하천 유량은 낙동강 2.4%, 금강 13.3%, 영산강 10.8% 줄어 33억t의 물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연합뉴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featuring a large table of property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a sidebar with '인생열쇠' and '대인동상일부동산' sections.